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6호 (2023.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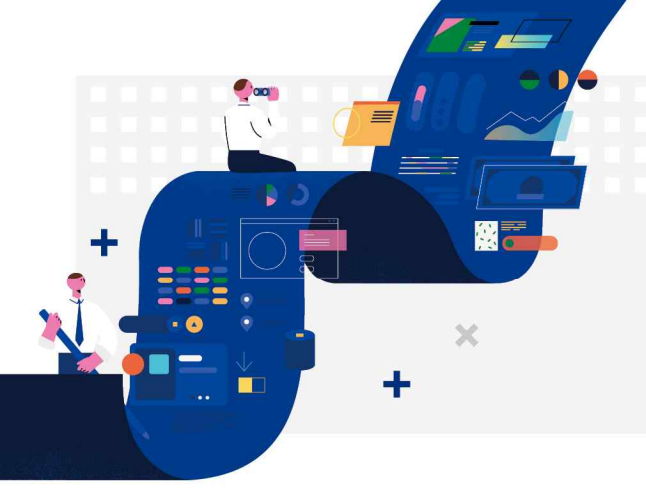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산업) 엔데믹 시기 항공MRO 산업 전망과 인천시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6호 (2023.06.30)

Cotents

I. 이 슈

(산업) 엔데믹 시기 항공MRO 산업 전망과 인천시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산업)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11

(무역) '무역 마이데이터'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11

(투자) 과기부, 금융·산업계 손잡고 미디어·콘텐츠산업에 5,000억 원 투자 12

(안전) 해수부, 착용 편리한 '벨트형 구명조끼' 무상 지원 12

(산업)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확정...신산업 관련 규제 30건 완화 .. 13

(관광)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환경 개선 13

(환경) "다양한 폐자원을 산업에 원활히 활용"...'순환경제' 본격 추진 14

(창업) '딥사이언스' 창업에 7,000억 원 투자...R&D 신시장 창출 14

연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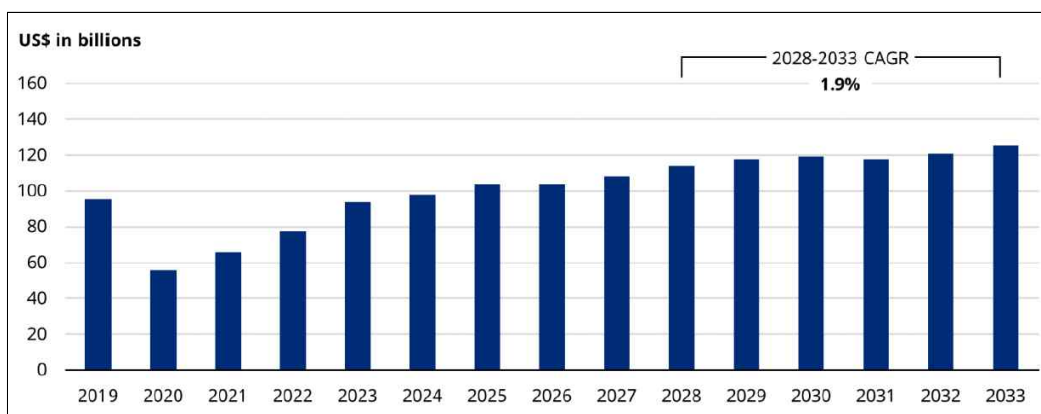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산업 > 엔데믹 시기 항공MRO 산업 전망과 인천시 시사점



#항공산업 #항공MRO #시장전망 #일자리창출 #산업생태계

- 2022년 이후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의 항공여객운송량이 급격히 회복되며 2023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2년 RPKs¹⁾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과 대비하여 68.5% 회복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는 85.9% 수준으로 상승
 -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PKs가 2019년 대비 2022년 43.7% 수준에서 2023년 1분기에는 74.2%로 급격히 상승
-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글로벌 항공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산업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시장 규모에 도달하고 있으며, 2033년 전 세계 항공MRO 관련 시장 규모는 1,253억 달러에 이를 전망
 - 2023년 기준 항공MRO 시장 규모는 △러-우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봉쇄 △노동공급 부족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항공운항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
 - 항공MRO의 시장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말 939억 달러, 2033년에는 1,253억 달러(한화 약 1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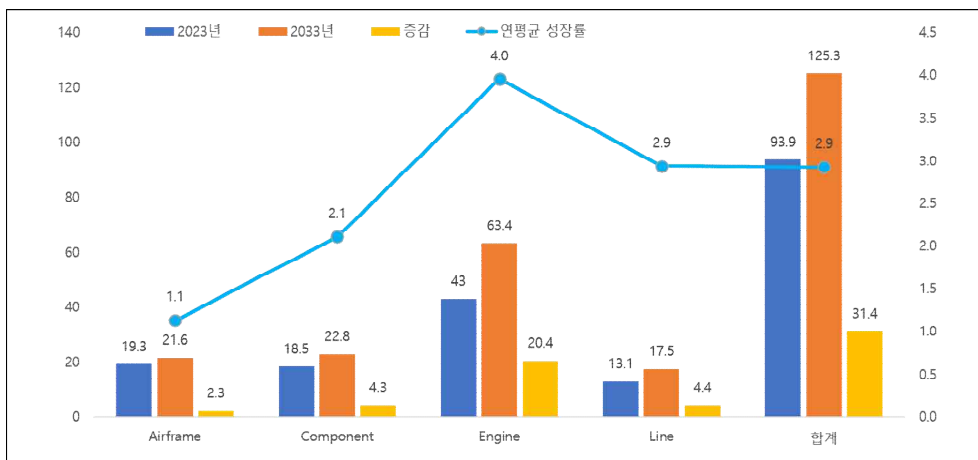


* 자료: Oliver Wyman(2023.02)

[그림 2] 글로벌 항공MRO 시장 전망('19~'23)

1) RPKs란 항공여객교통량(Revenue Passenger-Kilometers)을 의미.

- 세부 부문별로는 2023년 현재 항공MRO 시장 전체의 45.8%를 차지하는 엔진정비(Engine) 부문이 2033년까지 연평균 4.0% 수준의 성장률로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동안 기체정비(Airframe)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가장 더딜 것으로 예상(Oilver Wyman, 2023)
- 항공MRO 산업의 부문별 시장 규모는 2023년 대비 2033년 기체정비 부문 23억 달러, 부품정비(component) 부문 43억 달러, 엔진정비 부문 204억 달러, 운항정비(Line) 부문 44억 달러 성장할 전망
 - 2033년 기준 각 부문별 2023년 대비 성장률은 엔진정비 부문이 4.0%로 가장 높고, 운항정비 2.9%, 부품정비 2.1%, 기체정비 1.1% 순
- 항공 MRO 산업 시장 부문별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엔진정비가 2023년 45.8%에서 2033년 50.6%로 4.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 규모는 물론 비중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²⁾



* 자료: Oliver Wyman(2023)

〔그림 2〕 2023년 및 2033년 항공MRO 부문별 시장 규모와 연평균 성장률(CAGR)

- 항공산업은 항공기 제조산업, 운송산업, 정비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항공MRO 산업은 항공기의 운항을 위한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 관련된 활동을 총괄
 - 항공MRO 산업은 성장 잠재력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초기투자의 부담이 크고 OEM 및 항공정비 전문기업에 의한 기술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
 - 항공MRO는 제조와 밀접하게 관련된 첨단산업이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반도체·정유 산업과 유사하지만, 타 산업에 비해 자동화가 어렵고 항공기 운항을 위해 다양한 부품 사용 및 검사가 필요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요구(한국노동연구원, 2019)³⁾
 - 동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기존 항공기 운항사가 고용하는 숙련 항공정비사 외에 항공MRO 전문기업에서

2) Oliver Wyman(2023)에 따르면 항공MRO 산업 부문별 비중 변화는 엔진정비 45.8%(‘23)→50.6%(‘33), 기체정비 20.6%(‘23)→17.2%(‘33), 부품정비 19.7%(‘23)→18.2%(‘33), 운항정비 14.0%(‘23)→14.0%(‘33) 수준으로 전망.

3) 한국노동연구원(2019)에 따르면 국내 항공MRO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 유출 MRO 물량의 60%를 국내에서 해소할 수 있게 되면 2030년까지 12,700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여 총 22,843명 규모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채용하는 비숙련 항공정비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예상

- 동 산업은 항공기 도입·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속 지원시장(After marke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입 후 장기간(30년) 운영되는 항공기 특성상 1대의 항공기 운영기간동안 항공기 가격의 약 3~4배 가치의 정비 수요가 발생
-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정비 시장의 중요성으로 인해 항공기 원제작사(OEM)들 역시 후속 지원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UAE, 중국 등에서는 항공MRO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2.03)

[그림 3] 항공산업의 구성

- 전통적으로 항공 MRO 사업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부문에 따라 주요 정비행위에 필요한 기술적 난이도 및 초기 투자 필요 규모가 상이하여 진입 부문에 따라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
- 대체로 운항정비 부문인 A, B 체크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항사에서 자체 해결하고 기체정비에 해당하는 C 체크, D 체크부터 전문 MRO 기업의 사업영역으로 구분되나, 항공 MRO 전문기업에서 A, B 체크도 일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
- 항공MRO 산업은 운항정비, 기체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 세부 부문별로 정비 주체, 초기 투자 필요액, 기술집약도 등에 차이
 - 기체정비 부문은 기체 정비를 위한 정비고(Hangar) 건립을 위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요구되어 초기 투자액은 높고 기술 수준은 중등도 이상 요구되는 반면, 운항정비 부문은 비행기가 주기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일상 경정비를 의미하여 초기 투자 비용도 없고 요구 기술 역시 단순
 - 각 영역별로 산출되는 부가가치 수준 역시 단순 정비가 많은 운항정비 부문은 부가가치 수준이 낮은 반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엔진·부품·기체정비 부문은 상당한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

[표 1] 항공MRO의 세부 부문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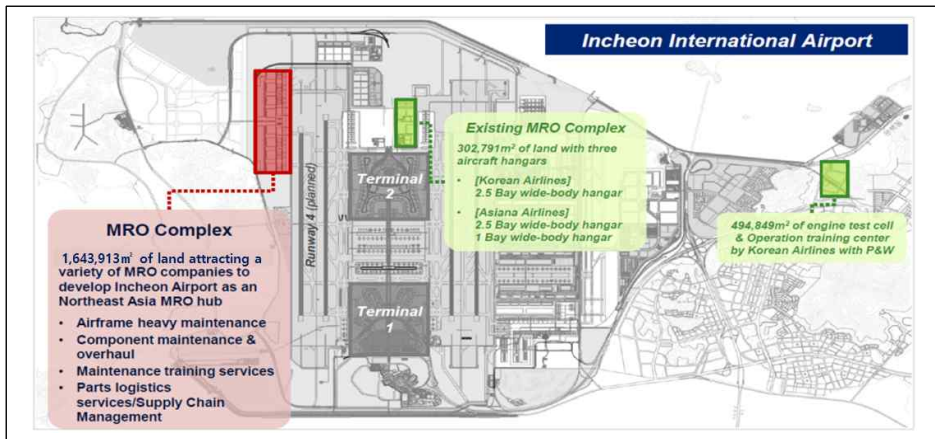
구분	운항정비	기체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개요	항공기 운항 후 다음 운항 전까지 운항 중 발생한 결함에 대한 수리	항공기 기체에 대한 정기 점검	항공기에서 엔진을 장탈하여 분해 및 검사 후 조립	항공기 및 엔진에 장착·운영되고 있는 주요 부품의 수리 및 분해
수행 주체	항공사	운항사 및 MRO 기업	엔진 제조사 및 인증 기업	MRO 전문기업 및 인증 기업
주요 정비행위	일상 경정비 (엔진오일, 타이어, 소모품 교환 등)	기체 안정성에 대한 정기 상세 점검 (동체, 날개, 배선, 객실 등)	엔진 안정성에 대한 정기 상세 점검 (압축기, 터빈 등)	유압, 기계, 전기, 전자로 구성된 종합부분품 정비
유형	비행 전·후 점검, A체크(350시간), B체크(600시간) 등	C체크 (2,500시간, 1.5년 주기), D체크 (20,000시간, 5~8년 주기)	OnWing, Overhaul 등 (4,500~24,000시간 주기)	분해조립, 작동점검, 재생, 기능점검 등 수시
기술집약도	Low	Low ~ Medium	High	Medium
초기투자	별도 시설투자 불필요 (Low)	기체정비를 위한 Hangar 설치 필요 (High)	엔진 테스트 장비 및 환경설비 비용 필요 (High)	제조설비 보유한 경우 추가 투자비용 낮음 (Medium)
비고	단순정비로 높은 자가정비 비율	정비시설, 노동력 등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초기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원제작사의 기술 진입장벽 및 시장점유율 상승 추세	기체정비와 One-stop 서비스 요구 증대, 고부가가치 부품 증가로 향후 고성장 전망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2), 딜로이트(2015) 등 참고 및 재구성

- 정부에서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21.08)’ 및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MRO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정부는 항공MRO 물량의 국내 처리 수준을 2025년까지 70%로 증가, 2030년까지 국내 항공MRO 시장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8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 항공정비기술과 항공MRO 부품의 국산화를 위하여 MRO 핵심기술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 적극 지원
 - 지역별 항공MRO 특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업체 유치 등에 중점을 두고 항공기 개조, 엔진정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남 사천 지역은 기체중정비, 군수 중심의 클러스터로 조성
 -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에서는 국내 MRO 산업을 기체 정비 위주의 저부가가치 MRO에서 탈피하여 엔진·항공기 개조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엔진 등 핵심 정비부품 △완제기 성능개량 △화물기 개조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집중 지원
-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MRO 산업의 수요가 매우 크고 항공부품 공급업체로 전환가능한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어 산업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코로나19 이전 기준 인천지역은 항공여객 세계 5위, 항공화물 세계 2위, 국제운항편이 연간 40만회에

이르는 글로벌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여 항공기 정비 수요가 매우 큰 지역

- 또한 항공MRO 산업의 성장에 필수요건인 제조업이 지역 내 15개 산업단지에 집적하고 있기때문에 항공MRO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중국, 인도 시장을 아우를 수 있어 항공MRO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
- 인천국제공항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의 운항사 정비시설 및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주)샤프테크닉스케이의 정비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2024년 종료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에는 164만㎡ 규모의 항공정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
- 뿐만 아니라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미국 아틀라스항공, 대한항공 등 국내외 항공기업의 MRO 사업 투자를 유치
- 세부 부문별로도 항공기 개조, 기체정비, 엔진정비 등 다양한 영역의 항공MRO 산업 앵커시설이 구축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항공MRO 클러스터가 형성 중



* 자료: 인천광역시(2020)

[그림 4]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MRO 단지 조성계획

[표 2] 인천 항공MRO 산업 최근 주요 이슈

분야	투자기업	주요 내용
항공기 개조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 Israel Aerospace Industry) 및 (주)샤프테크닉스케이	• 보잉777, A330 P2F* 개조 * P2F: Passenger to Freighter(여객기-화물기) • 인천공항 내 부지조성 및 화물기 개조시설 건립 • '25~'79년 누적 수출액 규모 15조 원
기체중정비	아틀라스에어테크니컬서비스(AAWW) 및 (주)샤프테크닉스케이	• 아시아태평양 화물기 정비 허브 구축 • 인천공항 내 화물기 정비시설 건립 • '25~'77년 누적 수출액 규모 13조 원
엔진정비	대한항공	• 항공기 엔진 정비시설 건립 • 총사업비 5,000억 원, 총 10종의 엔진 정비

- 현재 인천시가 육성하고 있는 항공기 개조, 항공기 엔진 정비 등 다양한 항공MRO 산업에 더하여, 항공MRO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항공MRO 정비부품을 생산하는 공급기지인 제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적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필요
 - 인천은 이미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MRO 산업을 위한 공간인 항공정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기 개조, 화물기 기체중정비, 엔진정비 등의 관련 산업기반이 구축 중에 있어 2025년부터는 가시화될 예정
 - 항공기 개조사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2026년 정점 이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⁴⁾되므로, 항공기 개조뿐만 아니라 엔진정비, 기체중정비 등 다양한 항공MRO 산업이 인천에서 성장하여 가치사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인천은 항공MRO 산업 기반 구축을 계기로 관련 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적 생태계 조성 요구
 - 지역 산업에 대한 항공MRO 산업의 후방파급효과 확대를 위하여 인천 제조업이 항공MRO 산업에서 사용될 정비부품의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증획득 등 제조기업의 항공MRO 관련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
 - 또한 항공MRO 거점과 원도심에 집중된 제조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항공MRO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항공MRO 관련 사업으로 인해 수천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항공기 개조, 항공기 정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는 항공정비사 및 항공정비 엔지니어에 해당하는 고급인력까지 추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적 대비 필요

4) Fortune Business Insights(2023.03).

서비스 >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액

- **(서비스생산)** 2023년 1분기 기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국과 인천에서 모두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
 - **(전국)** 2023년 1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5.3% 감소,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11.7 수준
 -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면 업종이 전체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며⁵⁾,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서비스업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개선
 - 서비스업 13개 업종 중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한 11개 업종의 서비스업생산지수가 100 이상으로 집계
 - 전년동기대비 생산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4.6%) △운수 및 창고업(17.2%) △숙박 및 음식점업(16.4%) 순
 - **(인천)** 인천의 1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3.1% 감소, 전년동기대비 10.0% 증가한 112.9로,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인천의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8.8%) △운수 및 창고업(47.1%) △금융 및 보험업(12.4%)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7.2%) △부동산(-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 등에서는 감소
 - 운수 및 창고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객이 크게 증가한 효과가 반영되어 연속 4분기째 전기대비 상승

5) 지수의 전기대비 증감에는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전년동기를 기준으로는 정보통신업(-2.0%)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지수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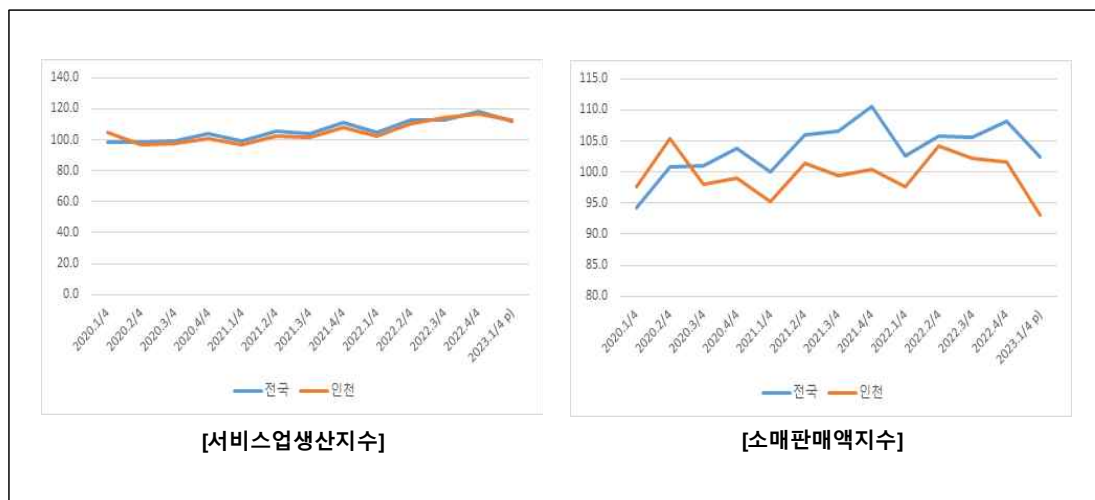
[표 1] 서비스업 주요 부문 생산지수

지역	항목	'22.3/4	'22.4/4	'23.1/4 (p)	'22.1/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도매·소매업	106.4	110.2	105.8	103.8	-4.0%	1.9%
	운수·창고업	128.6	131.8	125.5	107.1	-4.8%	17.2%
	숙박·음식점업	126.8	125.9	115.9	99.6	-7.9%	16.4%
	금융·보험업	117.9	122.5	124.7	112.2	1.8%	11.1%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185.5	182.5	148.5	119.2	-18.6%	24.6%
인천	도매·소매업	103.3	108.3	105.0	98.8	-3.0%	6.3%
	운수·창고업	127.4	137.5	145.9	99.2	6.1%	47.1%
	숙박·음식점업	118.1	119.8	104.2	100.9	-13.0%	3.3%
	금융·보험업	110.9	116.5	114.8	102.1	-1.5%	12.4%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339.7	222.0	180.3	121.2	-18.8%	48.8%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비율(%)로 표기

2 : 각 자료는 산업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中 불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및 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매판매액지수의 전국자료는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의 불변지수를 사용

[그림 1] 서비스산업 동향 추이(2023년 1분기)

- **(소매판매)** 2023년 1분기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슈퍼마켓·잡화 △편의점 △전문소매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약보합세
- **(전국)** 전국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5.3% 감소, 전년동기대비 0.3% 감소한 102.4로 감소세는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생산의 회복세에 비해 회복이 더딘 수준
 - 전국 17개 시도 중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액지수가 감소한 곳은 △제주(-5.8%) △인천(-4.7%) △전남(-1.4%) △경기(-1.1%) 등 네 곳이며, 소매판매 회복세가 가장 뚜렷한 지역은 △경북(9.2%) △대전(7.5%) △대구(7.2%) 순
 - **(인천)** 인천은 2023년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전기대비 8.6%,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93.0으로, 전년동기비 감소폭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하여 면세점 수요가 전년동기비 424.1% 증가했으나, 이 외의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감소

[표 2] 전국 및 인천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지역	항목	'22.3/4	'22.4/4	'23.1/4 (p)	'22.1/4	전기비	전년 동기비
전국	백화점	125.1	138.7	127.4	125.8	-8.1%	1.3%
	대형마트	99.4	92.0	93.7	95.7	1.8%	-2.1%
	면세점	106.5	107.1	70.6	104.3	-34.1%	-32.3%
	슈퍼마켓 및 잡화점	92.3	85.1	86.4	88.9	1.5%	-2.8%
	편의점	115.9	109.5	95.0	100.3	-13.2%	-5.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2.1	110.4	100.2	91.6	-9.2%	9.4%
	전문소매점	102.4	103.9	106.7	104.8	2.7%	1.8%
	무점포소매	109.6	115.9	111.0	111.8	-4.2%	-0.7%
인천	대형마트	94.5	86.3	90.7	93.3	5.1%	-2.8%
	면세점	101.9	134.8	169.8	32.4	26.0%	424.1%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101.5	95.2	82.4	91.6	-13.4%	-10.0%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3.5	99.2	93.2	101.8	-6.0%	-8.4%
	전문소매점	99.9	105.3	90.5	99.9	-14.1%	-9.4%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 각 자료는 시도별,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中 불변지수를 사용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05.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98,029	-9.0	135,962	-24.1	37,933	12,000	-18.8	16,990	27.5	4,990
자동차	20,468	4.4	79,659	34.3	59,192	1,364	10.6	7,011	74.8	5,647
기계장비	59,334	-4.2	56,148	-14.0	-3,186	4,397	-11.5	5,304	9.7	908
바이오-의약	7,971	-14.6	4,798	-20.3	-3,173	874	-9.6	3,190	-7.2	2,315
바이오-화장품	1,692	0.5	7,517	-8.8	5,825	23	16.2	1,337	-49.8	1,314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산업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소방청

- 지난 6월 9일, 연료전지 설치 시의 안전기준에 대해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발령·시행되며, 주유소 내 유희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개발·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방청 역시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안정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사고발생 위험시설인 주유소는 부대업무 이외의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은 연료전지로 발생가능한 사고요인 분석,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증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하여 고시를 개정
 - 동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시에는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 건축물 상부에 설치 △지상 및 지상구조물에 연료전지 설치 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 시를 대비한 수동식 원료 차단밸브 설치 등의 주요 안전기준 충족 필요

무역

'무역 마이데이터'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관세청

-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및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마이데이터(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6월 14일부터 본격 운영
 -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존에 종이서류 형태로 준비·제출해야 했던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련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
 - 이를 통해 무역금융 신청에 소요되는 과다한 행정비용으로 인해 사실상 수출금융 신청을 포기해온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가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뱅크트라스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전송한 후, '무역 마이데이터'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기관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전송하면 절차가 완료
 - 금융기관은 현재 IBK기업은행만 이용가능하며, 향후 타 은행 역시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IBK기업은행,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IPTV 3사 등 금융·산업계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업계에 약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 동 방안을 통해 △미디어·콘텐츠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 조성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추진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제공 등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정책을 수행할 계획
- 미디어·콘텐츠기업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세부사항

수행주체	주요내용	세부 지원사항
정부	약 1,000억 원 규모 신규펀드 조성 (2023~2024년)	•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펀드) OTT 및 크리에이터 분야 미디어·콘텐츠 프로젝트나 지분에 투자 • (디지털 콘텐츠 펀드) 메타버스, XR, VR 등을 활용하는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투자
정책금융기관	약 800억 원 규모의 투자·대출·보증	• (투자 프로그램) 기업은행과 함께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 향후 3년간 100억 원 투자하는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투자프로그램’ 연계 • (대출·보증)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2023년 약 700억 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제공
산업계	약 3,400억 원 수준 투자 유도	• (iPICK) IPTV 3사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계획한 iPICK을 통한 콘텐츠 투자 확대 • (KIF)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Korea IT Fund’의 주요 투자분야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포함
기타 (해외)	글로벌 투자자본 유치 노력	• 순방 후속교류, 수출개척단, 주요 국제 콘텐츠 마켓 및 행사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해외 투자 유치 지원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지원할 계획
- 신규 개발된 ‘벨트형 구명조끼’는 낚싯바늘에 잘 걸리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이물질이 잘 묻지 않고 잘 씻기는 소재를 적용
- 기존의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 어려워 조업과 선상 작업에 불편함이 있어 선박 추락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의 우려가 높았던 점을 개선
- 해수부는 해상 추락 때 위험도가 높은 ‘나홀로 선박’(1~2인)에 새로 개발된 구명조끼를 우선 지원한 이후, 승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선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

#국무조정실

○ 지난 6월 15일, 정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신산업 기업으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기업 등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과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진행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위원회 진행 결과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확정되어 5개 과제는 고시 개정·유권해석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5건은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소관부처	주요 개선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 기존의 태양광발전 모듈 설치 방향 제한을 최적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단계적 개선(폐지, 완화) 추진(~'23.1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신규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의 신속처리 대상 지정 관련하여 신규 치료제가 기존 대비 현저한 개선 효과 보유 시 신속처리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치(~'23.12)
국토교통부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종에 성능이 동등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부품을 장착할 시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최소한의 서류 검사만 실시 • 대전시 드론 상용화 사업 추진 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티드론시스템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전시 비행금지구역을 완화
보건복지부	• 현재 2년에 불과해 임상근거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의 유예기간 한도를 연장하고, 비침습 의료기술의 범위를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SW) 조달사업에 포함된 중소기업 상용SW 직접구매 면제 요건 관련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SW 직접구매를 유도

#법무부

○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

- 인천공항 입국심사의 경우 오전 11시~ 오후 5시 등 특정 시간대의 입국자 쏠림 현상과 얼굴 사진 및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외국인 입국심사 시간이 지체되어 대기시간이 증가
- 법무부는 혼잡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해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 시 한계가 예상되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
- 이에 혼잡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 조기 종료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 △등록외국인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촉진 △자동출입국심사대 비등록외국인에 확대 검토 등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폐기물 재자원화를 위한 규제개선 △자원 재사용 관련 신규 프로젝트 추진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
 - ‘순환경제’란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의 △사용연장 △효율성 제고 △순환 시스템화를 통해 사용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의미
 -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주요 내용

핵심 과제	세부 추진 과제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① 핵심자원의 순환이용성 제고 ②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 ③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④ 순환경제 부문 규제개선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	[CE 9 프로젝트 : 9대 산업 - 9대 프로젝트] • (석유화학)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 • (철강·비철금속)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 •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 (전자·섬유) 에코디자인 도입·시행 • (자동차·기계)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 • (시멘트) 대체 연·원료 확보
순환경제 기반 구축	①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 ②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③ 스타기업 발굴·지원 ④ 자원효율 제도·기반 마련 ⑤ 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하여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창업 R&D 투자 △R&D 창업기업 확대 △창업기업 생존율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 * ‘딥사이언스 창업’이란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고난도의 과학적 지식과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 기술 분야의 도전적 창업을 의미
 - 과기정통부는 활성화 방안에 따른 딥사이언스 창업 확대를 위해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R&D와 핵심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방식의 강한 지식재산 발굴함과 동시에 딥사이언스 창업 관련 펀드 조성할 계획
 - 또한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 및 기획형 창업지원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딥사이언스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확대 △공정한 성과배분 및 보상방식 다양화 등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의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

참고 자료

- IATA, 「Global Outlook for Air Transport - Highly Resilient, Less Robust」, 2023.06.
- Oliver Wyman, “Global Fleet and MRO Market Forecast 2023-2033”, 2023.0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2022.03.10.
- 딜로이트(Deloitte), 「항공정비(MRO) 및 부품제조 산업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 연구」, 2015.
- 한국노동연구원, 「항공 MRO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10.23.
-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1.08.12.
-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21~2030)”, 2021.03.05.
- 인천광역시,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방안 연구」, 2020.20.
- Fortune Business Insights, “Passenger to Freight Market Size, Share & COVID-19 Impact Analysis, By Build Type (New Build and Refurbish), By Aircraft Model (Narrow Body, Wide Body, and Regional Jets), By Fitment (Slot/Retro Fitment and Lone Fitment), and Regional Forecast, 2022-2029”, 2023.03.
- 통계청, “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2023년 1/4분기)”.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소방청, 2023.06.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역 마이데이터’ 1분만에 전송…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관세청, 2023.06.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MOU) 체결”, 2023.06.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수부, 착용 편리한 ‘벨트형 구멍조끼’ 무상 지원”, 해양수산부, 2023.06.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신산업 발목잡는 규제 30건 푼다”, 국무조정실, 2023.06.1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750% 급증…법무부, 입국 심사환경 개선”, 법무부, 2023.06.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양한 폐자원을 산업에 원활히 활용”…‘순환경제’ 본격 추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2023.06.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난도 과학기술, 미래 신산업으로 탈바꿈한다”, 2023.06.21.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6호(2023.06.30)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6월 30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